

생활변인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 차이검증

최 윤 선[†]

김 동 현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생활변인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도구는 수면시간, 사교육 수, 여가시간, 부모와 대화시간, 친한 친구 수, 독서량 등을 알아보는 생활변인 척도와 아동의 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515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시간에 따라 유능감의 하위 변인(6가지 : 학업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감) 중 운동적 유능감에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사교육 수에 따라 학업적 유능감에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여가시간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라 유능감의 4가지 하위 변인(학업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차이를 나타냈다. 다섯째, 친한 친구 수에 따라 유능감의 5가지 하위 변인(학업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차이를 나타냈다. 여섯째, 독서량에 따라 유능감의 2가지 하위 변인(학업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에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생활변인들에 따라 아동의 유능감의 하위 변인에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유능감에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생활변인은 친한 친구의 수와 부모와 대화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수면시간, 사교육 수, 여가시간, 부모와 대화시간, 친한 친구 수, 독서량, 유능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윤선,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경기도 영통구 월드컵로 206
E-mail: kdsunny@daum.net

아동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시기로 공교육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도하다. 이 시기에는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가족에서 친구로 확대되는 가운데 학교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규범, 학습능력과 태도, 사회적 기술 등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동에 대한 평가이다. 평가는 아동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과 자아 개념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공교육이 강화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아동과 학부모들은 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평가는 크게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 평가란 학교, 사회, 가정 등 외부 주체가 아동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 내부 평가란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부 평가와 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유능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유능감이란 경험, 성취, 대상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리는 내부 평가이다(Harter, 1982). 유능감은 관계성, 자율성과 더불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이다(Deci & Ryan, 1985). 또한 과제수행 결과에 의한 후행적인 요소이면서 선행적인 요소이다(White, 1959, Heath, 1981, Connel, 1987).

현재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자아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협력, 동기 등 정의적 영역을 포함한 내부적인 평가가 시도되고 있지만(경기도교육청, 2013), 아직까지는 외부 평가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학업, 입시 및 경쟁 중심의 학교와 사회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외부 평가를 중요시하는 교육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특징을 나타낸다. 즉, 국어, 수학, 과학을 포함한 주요과목의 학업성취 능력에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만, 유능감, 내적동기, 자아개념 등 정의적 능력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아동의 행복감 국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조사 대상 12개국 중 가장 낮은 주관적 행복감을 나타냈다(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6). 더욱이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증가할수록 행복감 수치는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경쟁 위주의 외부 평가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유능감, 행복감, 만족감 등 내적인 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유능감은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학업성취 뿐 아니라 건강한 심리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선행연구에서 유능감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황봉자, 2001), 성취목표와 자기주도학습(김영민, 2016), 내적 동기(심은미, 1989)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능감은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박상혁, 2012; 이애리, 2012; 조경서, 남기원, 2011). 이처럼 유능감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도전, 성취, 행복에 대한 중요한 연결 고리이며 학교적응(송미원, 1999)과 학교생활만족(명지영, 2002)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개인 환경과 관련하여 유능감은 다중지능(김현자, 2004), 학습동기(김선아, 2013), 창의성(이영나, 2006), 학습된 무

기력(이금희, 2006), 자율성(최윤선, 김동현, 2016) 등과 관련이 깊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언어 통제 유형(이영숙,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김지은, 2003, 황혜순, 2008), 부모의 학력, 직업, 태도 및 가족형태(김현자, 2004) 등이 유능감에 영향을 준다. 사회 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공격성(서재연, 1998), 교우관계의 질(신지영, 2002), 성취 목표(황봉자, 2001) 등이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자기결정성이 유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선, 2016).

한편 문수경과 이무영(2008)은 이러한 심리·정서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원변인의 탐색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면시간, 사교육 참여수, 여가시간, 부모님과 대화시간, 등 4개 변인을 자원변인으로 규정하고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부모님과 대화시간과 사교육 수가 아동의 행복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실생활과 관련된 정량적인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들(문수경, 이무영, 2008; 우복남, 2015)은 변인 측정이 용이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유능감은 단일한 요인으로 구성되지 않고 학업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전반적 유능감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다(Harter, 1985). 국내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능감의 각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위요인 별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서미정 1999). 이러한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능감을 Harter (1982)가 분류한 여섯 개의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았다.

생활 변인들과 유능감의 하위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수면 시간 저하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데(김희진, 2008; 한미진, 2003), 유능감은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의 저하는 유능감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현정환, 1996). 사교육과 유능감의 관계에서 무용학습이 신체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며(은수희, 2000), 여가는 신체적,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고(서동균, 2007), 부모,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유능감에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며(Harter, 1982), 독서는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는 요소로 확인되었다(오윤주, 2009; 김종순, 2012).

아동기의 유능감은 성인기의 유능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안정된 성격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Mussen, 1980). 이처럼 아동기의 유능감은 성인에 이르기 까지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아동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발달과제이다. 따라서 아동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변인이 유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섯 개의 변인들을 생활변인으로 규정하고 이 변인들이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생활변인에 포함된 변인은 생활시간의 요소인 수면시간, 사교육 참여수, 여가시간과 상호작용적 요소인 부모와 대화시간, 친한 친구 수, 독서량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의 유능감은 생활변인(수면시간, 사교육 참여수, 여가시간, 부모와 대화시간, 친한 친구 수, 독서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생활변인

아동의 생활이란 하루 24시간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면, 학업, 여가 활동을 의미한다(손애리,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을 생활변인이라고 하였다. 생활변인은 주로 시간 단위나 경험의 횟수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김기현과 안선영(2009)은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 사교육, 여가시간, 수면시간을 생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문수경과 이무영(2008)은 수면시간, 사교육 참여 수, 부모와 대화시간, 여가시간을 변인에 포함하였다. 또한 우복남(2015)은 생활변인으로 부모와 대화시간(가정생활), 친구 수(학교 생활), 여가생활(방과 후 생활)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수면시간, 사교육 참여수, 부모와 대화시간, 여가시간, 친한 친구 수, 독서량 등 모두 여섯 변인을 생활변인에 포함하였다.

수면시간

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으로 하루의 많은 시간을 구성한다. 수면은 개인의 성장, 행동,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Sadeh, Gruber & Raviv, 2002). 특히 수면은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Touchette, Petit & Tremblay, 2009)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만족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아가치감을 높이며 우울의 하위변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이영주, 2012). 충분한 수면은 생체리듬을 안정시키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반면, 부족한 수면은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초래 할 수 있다(전상희, 장정미, 2009). 한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수면 시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면이 부족할 경우 피로감, 두통, 졸음 등의 수면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과 생활 전반에 다른 문제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윤정민, 이해란, 이건희, 2007) 수면은 아동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교육 수

사교육이란 공교육을 제외한 학원, 학습지, 보습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사교육의 본래 취지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개성 발휘에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해 준다는데 있다. 그러나 지나친 사교육은 아동들에게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떨어뜨린다(장혜정, 2005). 또한 사교육의 수는 학습동기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한다(장혜정, 2005). 반면에 무용학습이 아동의 신체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은수희, 2000), 학교 수업만으로 어려운 부분을 사교육 수강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김경희, 2008)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사교육 수와 관계된 연구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

여가시간

여가란 자유로운 시간 내에서 활동을 자유

롭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장혜림, 2010). 아동의 경우 학업에서 벗어난 놀이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아동기의 여가 활동은 인간관계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최지현, 2004). 여기는 아동에게 인간관계 개선과 자신감 향상을 이끌며(김현주, 2002), 여가 참여의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윤종효, 2000). 또한 아동들은 여가를 스트레스 해소나 자유 시간으로 인식하고 활용한다(조성자, 2008).

부모와 대화시간

부모와 대화시간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런 안정감을 바탕으로 아동은 사회에서 온전히 기능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최성희, 2015).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구성원의 일체감,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최길례, 2002). 엄마와 자녀의 공유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배지아, 2014). 또한 부모와 충분한 대화시간과 상호작용 기회는 아동의 또래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증가시킨다(김민경, 2005).

친한 친구의 수

아동에게 있어서 친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이다. 친구를 통해 안정감, 만족감, 소속감, 친밀감, 일체감 등 다양한 긍정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아동은 친구를 통해 협력과 배려 뿐 아니라 경쟁과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아동은 친구와 어울리면서 사회화 되고 더욱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간다(김보경, 2009). 한편 아동은 중요 타인인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능감을 발달시킨다(Harter, 1985). 또한 친구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김영희, 2011). 요즘에는 저출산 현상으로 가족 내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정책으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일찍부터 보육시설에 맡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친구가 형제, 자매의 역할까지도 대신하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서량

독서는 문자화된 상징을 이해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인지적 과정이며(양인렬, 2011), 기존 지식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과 기억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다(조정연, 2008). 또한 독서는 학습자의 쓰기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최윤진, 2007). 아동은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을 포함한 등장 인물들과 내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며,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적 능력을 개발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준비할 수 있다. 독서는 유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서는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오윤주, 2009; 김종순, 2012, 박은희, 2015). 또한 독서는 아동의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문남희, 2009).

유능감

유능감(competence)이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말한다. 유능감은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 또는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내면적 힘을 포함한다(White, 1959, Heath, 1981, Connel, 1987). 이 내면적 힘은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엔진과도 같은 강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동기이론가들은 유능감을 자율성, 관계성과 더불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 중 하나로 보았다(Deci & Ryan, 1985). 따라서 유능감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임과 동시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

Harter(1982)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유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아동들은 서로 다른 영역(학업, 사회, 신체, 운동,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에서 유능감을 지각할 수 있으며, 한 개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 타인(부모, 형제, 친구)과의 상호작용이 유능감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기 후기에는 자아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자신에 대한 내부평가를 본격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12세경 개인의 성격처럼 안정화된다(Mussen et al, 1980). 한번 형성된 성격이 바뀌기 힘든 것처럼 이 시기에 형성된 유능감도 성인까지 안정성을 가진다. 또한 이 시기에 유능감이 낮은 아동들은 부정적 자기 평가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새로운 도전의 기회조차 상실할 수 있다(Bandura, 1977).

유능감이 형성되기 위한 선행조건은 환경, 경험, 평가(해석)이다. 유능감은 이런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 먼저 아동에게 과제가 제시된다. 아동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아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해석)를 내린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해석)를 강화한다. 그 결과 적응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개인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추진력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송영명, 2011), 성공을 이끌며(유은경, 2000), 유능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김지은, 2003). 또한 유능감은 실패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높아질 수 있으며(최효식, 2013),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강화될 수도 있다(조명화, 2009).

국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능감 연구는 주로 사회적 유능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학교현장에서 왕따, 은따, 학교폭력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

표 1. 유능감의 하위변인

하위변인	의미
학업적 유능감	학업 수행과 관련된 지적 능력이 나 자신감
사회적 유능감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운동적 유능감	스포츠 등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
신체적 유능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
행동적 유능감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품행에 대한 만족감
전반적 자아가치감	자존감과 행복감처럼 유능감 하위변인들에 대한 총체적 개념이며 자기에 대한 만족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Harter(1982)는 유능감이 학업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Harter(1982)의 유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생활변인이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6개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고 있으며 하위요인별 의미는 표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3개 초등학교 5, 6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용 설문지를 배포하여 573명을 설문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들을 제외하고 51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는 261명, 여자는 251명 이었으며(무응답3명), 5학년 259명, 6학년 255명(무응답1명) 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생활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6문항), 아동의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36문항)가 사용되었다.

생활변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환경적 생활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문수경과 이무영(2008)이 아동의 생활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수면 시간, 사교육 수, 부모와 대화시간, 여가시간 4 문항에 추가로 친한 친구 수, 일주일당 독서량(학업과 무관) 2문항을 포함해서 모두 6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유능감

아동의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 & 1985)의 아동용 유능감 검사(Self-Perception Profilefor Children)를 수정한 이영나(2006)의 아동의 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학업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감으로 모두 6개이다. 6개의 하위요인은 각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3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내적일치도 표 2와 같다.

유능감 점수 채점 방법

응답형태의 경우 각 문항에는 자신에 대해서로 상반되게 진술한 두 가지 문항이 제시되며 두 진술문 중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표 2. 유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 수	Cronbach's <i>a</i>
학업적 유능감	1, 7, 13, 19, 25, 31	6	.80
사회적 유능감	2, 8, 14, 20, 26, 32	6	.81
운동적 유능감	3, 9, 15, 21, 27, 33	6	.87
신체적 유능감	4, 10, 16, 22, 28, 34	6	.75
행동적 유능감	5, 11, 17, 23, 29, 35	6	.78
전반적 자아가치감	6, 12, 18, 24, 30, 36	6	.84
전체		36	.94

것을 골라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응답하게 된다. 따라서 총 4개의 응답이 있을 수 있으며 각 문항은 1-4점의 점수를 가지게 된다. 분석에는 각 하위요인 별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각 응답자의 점수 범위는 1-4점이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각각 6점에서 24점이며, 전체점수의 합은 36점에서 144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척도에는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능감 문항 예시는 표 3과 같으며 사회적 유능감(1번), 신체적 유능감(2번)의 예이다.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설문조사에 앞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참가 동의서를 각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학부모들이 동의한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초등학교 담임교사 24명에게 설문조사 유의사항을 사전에 배부하였으며, 담임교사들의 지도하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추후 연구자가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생활변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 유능감 문항 예시

번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문항 (가)	문항 (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V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 한다		
2			나는 내 모습에 만족 한다	나는 내 모습에 불만이 있다.		V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먼저 응답자들의 유능감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은 여아가 48.7%이고 남아가 50.7%이었으며, 학년은 5, 6학년이와 49.5%와 50.3%의 비율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37.5%)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생활변인 실태분석

아동들의 생활변인 실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의 아동들의 수면시간은 7-8시간(34.4%)과 8-9시간(34.4%)으로 대부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아동들의 수면시간은 6시간 미만인 것으로(2.3%) 나타났다. 사교육 수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들은 1-4개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나(66.7%), 5개 이상 과도하게 학원을 수강하는 아동도 17.5%나 되었다. 부모와 대화시간은 1-2시간이라고 대답한 아동들이 28.9%로 가장 많았고, 1시간미만이라고 응답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범주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61	50.7
	여자	251	48.7
	무응답	3	0.6
학년	5학년	259	50.3
	6학년	255	49.5
	무응답	1	0.2
주양육자	어머니/아버지	285	55.3
	어머니	193	37.5
	아버지	6	1.2
	기타	28	5.4
	무응답	3	0.6
형제순위	외동	65	12.6
	첫째	220	42.7
	둘째	202	39.2
	셋째	25	4.9
	넷째이상	3	0.6
형제수	1명	199	38.6
	2명	243	47.2
	3명	39	7.6
	4명이상	9	1.7
	무응답	25	4.9

한 아동들도 11.3%나 되었다. 여가시간은 1-2시간이라고 응답한 아동들이 28.9%로 가장 많았다. 친한 친구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49.7%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가 1명 미만인 아동이나 1-2명이라고 응답한 아동들도 11.9%나 되었다. 독서량은 5권이상이 32.0%로 가장 많았고(초등학생들이 주로 읽는 책들의 한 권 분량이 대개 30-40쪽인 경우가 많음), 1권미만이 5.4%로 나타났다. 생활변인 수준은 표 5와 같다.

표 5. 응답자들의 생활변인 수준

생활변인	범주	빈도(명)	비율.(%)
수면 시간	6시간 미만	12	2.3
	6-7시간	67	13.0
	7-8시간	177	34.4
	8-9시간	177	34.4
	9시간 이상	80	15.5
사교육 수	무응답	2	0.4
	1개	110	21.4
	2개	128	24.9
	3개	105	20.4
	4개	58	11.3
일평균 여가시간	5개 이상	90	17.5
	무응답	24	4.7
	1시간 미만	58	11.3
	1-2시간	149	28.9
	2-3시간	139	27.0
일평균 부모와 대화시간	3-4시간	90	17.5
	5시간 이상	74	14.4
	무응답	5	1.0
	1시간 미만	91	17.7
	1-2시간	168	32.6
친한 친구 수	2-3시간	106	20.6
	3-4시간	83	16.1
	5시간 이상	59	11.5
	무응답	8	1.6
	1명 미만	7	1.4
일주일 평균 독서량	1-2명	54	10.5
	3-4명	127	24.7
	4-5명	70	13.6
	5명 이상	256	49.7
	무응답	1	0.2
일주일 평균 독서량	1권 미만	28	5.4
	1-2권	135	26.2
	2-3권	110	21.4
	3-4권	76	14.8
	5권 이상	165	32.0
무응답	1	0.2	

표 6. 유능감 전체와 각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

변인	M	SD	최소값	최대값
학업적 유능감	3.01	.48	1.33	4.00
사회적 유능감	3.12	.49	1.50	4.00
운동적 유능감	3.00	.58	1.20	4.00
신체적 유능감	2.98	.52	1.33	4.00
행동적 유능감	3.00	.45	1.50	4.00
전반적 자아가치감	3.23	.47	1.17	4.00
유능감 전체	3.06	.39	1.64	4.00

유능감의 기술통계분석

유능감 전체와 각 하위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생활변인에 따른 유능감 차이분석

유능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독립변인은 생활변인의 각 하위변인이었으며, 종속변인은 아동의 유능감 척도의 각 하위요인이었다. 분산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경우 마찬가지로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해 어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였다.

수면시간에 따른 유능감 차이

수면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유능감은 운동적 유능감($F=2.70, p<.05$)의 경우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아이들에 비해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8-9시간, 9시간 이상)인 아이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수면시간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 차이검증

유능감	수면 시간	N	M	SD	F (사후 검증)
운동적 유능감	6시간 미만	12	2.62 a	.77	2.70* (b>a)
	6-7시간	67	2.96 ab	.57	
	7-8시간	177	2.94 ab	.60	
	8-9시간	177	3.07 b	.53	
	9시간 이상	80	3.06 b	.63	

* $p<.05$

표 8. 사교육 수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 차이검증

유능감	사교육 수	N	M	SD	F (사후 검증)
학업적 유능감	1개	110	2.96 ab	.49	4.14** (b>a)
	2개	128	2.92 a	.53	
	3개	105	3.06 ab	.44	
	4개	58	2.97 ab	.49	
	5개 이상	90	3.16 b	.38	

** $p<.01$

사교육 수에 따른 유능감 차이

사교육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유능감은 학업적 유능감($F=4.14, p<.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학원을 5개 이상 다니는 아이들의 학업적 유능감은 학원을 2개 다니는 아이들의 그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따른 유능감 차이

여가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유능감은 사회적 유능감($F=4.52, p<.01$)으로 여가시간이 하루에 2-3시간 아이들의 사회적

표 9. 여가시간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 차이검증

유능감	여가 시간	N	M	SD	F (사후 검증)
사회적 유능감	1시간 미만	58	3.06 ab	.52	4.52** (b>a)
	1-2시간	149	3.12 ab	.50	
	2-3시간	139	3.22 b	.48	
	3-4시간	90	3.06 ab	.48	
	5시간 이상	74	2.93 a	.54	

**p<.01

유능감이 5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아이들의 그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대화시간에 따른 유능감 차이

학업적 유능감과 신체적 유능감의 경우 (일평균) 부모와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인 아이들에 비해 대화시간이 3시간 이상(3-4시간, 5시간 이상)인 아이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유능감의 경우 일평균 부모와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인 아이들에 비해 대화시간이 2-3시간, 그리고 5시간 이상인 아이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경우 부모와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인 아이들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부모와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하는 아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유능감 차이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유능감의 차이검증에서는 친구 수가 1명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7명 뿐이었다. 따라서 각 집단별 크기의

표 10. 부모와 대화시간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 차이검증

유능감	대화시간	N	M	SD	F (사후 검증)
학업적 유능감	1시간 미만	91	2.84 a	.48	5.14*** (b>a)
	1-2시간	168	3.00 ab	.46	
	2-3시간	106	3.03 ab	.46	
	3-4시간	83	3.09 b	.51	
	5시간 이상	59	3.16 b	.49	
신체적 유능감	1시간 미만	91	2.78 a	.58	4.41** (b>a)
	1-2시간	168	3.00 ab	.49	
	2-3시간	106	3.00 ab	.49	
	3-4시간	83	3.05 b	.53	
	5시간 이상	59	3.08 b	.57	
행동적 유능감	1시간 미만	91	2.86 a	.44	4.35** (b>a)
	1-2시간	168	2.98 ab	.44	
	2-3시간	106	3.08 b	.45	
	3-4시간	83	3.01 ab	.44	
	5시간 이상	59	3.13 b	.53	
전반적 자아 가치감	1시간 미만	91	2.98 a	.52	8.92*** (b>a)
	1-2시간	168	3.25 b	.44	
	2-3시간	106	3.26 b	.44	
	3-4시간	83	3.30 b	.47	
	5시간 이상	59	3.38 b	.52	

p<.01, *p<.001

차이가 너무 커서 일원분산분석의 의미가 의심되기 때문에 친구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적 유능감의 경우 친한 친구가 1-2명, 4-5명인 아이들의 학업적 유능감이 친구가 5명 이상인 아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표 11.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 차이 검증

유능감	친구 수	N	M	SD	F (사후 검증)
학업적 유능감	1-2명	54	2.82 a	.49	6.09*** (b>a)
	3-4명	127	3.02 ab	.45	
	4-5명	70	2.89 a	.49	
	5명 이상	256	3.08 b	.48	
사회적 유능감	1-2명	54	2.70 a	.44	33.65*** (c>b>a)
	3-4명	127	2.99 b	.49	
	4-5명	70	3.04 b	.47	
	5명 이상	256	3.30 c	.42	
운동적 유능감	1-2명	54	2.68 a	.50	13.55*** (b>a)
	3-4명	127	2.94 a	.59	
	4-5명	70	2.87 a	.56	
	5명 이상	256	3.15 b	.56	
신체적 유능감	1-2명	54	2.80 a	.55	8.72*** (b>a)
	3-4명	127	2.98 ab	.55	
	4-5명	70	2.79 a	.48	
	5명 이상	256	3.08 b	.49	
전반적 자아 가치감	1-2명	54	3.03 a	.45	8.03*** (b>a)
	3-4명	127	3.25 ab	.48	
	4-5명	70	3.09 a	.48	
	5명 이상	256	3.31 b	.45	

p<.01, *p<.001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의 경우 친한 친구가 1-2명인 아이들의 사회적 유능감이 3명 이상인 아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운동적 유능감의 경우에도 친한 친구가 5명 이상인 아이들의 운동적 유능감이 다른 집단(1-2명, 3-4명, 4-5명) 아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유능감의 경우를 살펴보면, 친한 친구가 1-2명, 4-5명인 아이들의 신체적 유능감이 친구가 5명 이상인 아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유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경우 역시 친한 친구가 1-2명, 4-5명인 아이들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친구가 5명 이상인 아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에 따른 유능감 차이

독서량에 따라 학업적 유능감의 경우 독서량이 1권 미만인 아이들에 비해 2-3권인 아이들이 높았으며, 독서량이 3권 이상(3-4권, 5권 이상)인 아이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유능감의 경우 독서량이 1권 미만인 아이들에 비해 3권 이상(3-4권, 5권 이상)인 아이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독서량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 차이 검증

유능감	독서량	N	M	SD	F (사후 검증)
학업적 유능감	1권 미만	28	2.65 a	.58	19.01*** (c>b>a)
	1-2권	135	2.82 ab	.44	
	2-3권	110	2.99 bc	.43	
	3-4권	76	3.06 c	.47	
행동적 유능감	5권 이상	165	3.21 c	.44	6.50*** (b>a)
	1권 미만	28	2.77 a	.47	
	1-2권	135	2.89 ab	.39	
	2-3권	110	2.97 ab	.48	
	3-4권	76	3.08 b	.47	
	5권 이상	165	3.10 b	.46	

***p<.001

논 의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아동이 가진 실제 능력인 유능함보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신념인 유능감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신념이 학습의 기초와 기본을 형성하고 성취욕구와 자신감을 부여하며 아동의 발달을 이끄는 중요한 동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변인의 수준에 따라 유능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시간에 따라 아동의 운동적 유능감은 차이를 보였다.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아동들에 비해 8시간 이상인 아동들의 운동적 유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에 따라 운동적 유능감에 차이를 나타난 이유는 수면과 신체건강과의 관련성으로 보인다.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비만의 가능성도 증가한다(엽경은, 2016). 또한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동들은 운동적 유능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운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활동성을 낮추고 다시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성림, 2012). 주목할 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들의 수면 시간은 짧아진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9). 고학년 아동들은 학업 양이 많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반면,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어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될 수 있다. 수면은 근육, 장기와 같은 신체뿐 아니라 뇌에도 휴식을 제공하여 생활에 필요한 활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이혜진, 2011). 따라서 아동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사교육 수에 따른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원을 5개 이상 다니는 아동의 학업적 유능감이 2개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단순히 해석하면,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동들은 자신 스스로를 학업적으로 유능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사교육 수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다른 사회적 배경변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수는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배경 변인을 통제하고 나면, 사교육 경험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최미나, 2007). 또한 사교육 참여에 있어 사교육 수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학업적 효능감은 달라졌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한신일, 이석열, 박진은, 2012). 같은 맥락에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사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의 학습동기가 높고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경희, 2008). 따라서 단순히 사교육 수와 학업적 유능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겠다.

셋째, 여가시간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이 차이를 보였다.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2.3시간의 여가시간을 가진 아동들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장 높은 반면, 5시간 이상 여가시간을 가진 아동들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여가와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여가 활동 경험은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노용구, 윤영선, 안동수, 2016). 또한 생활체육 참가와 사회적 유능감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었다(이진, 이학래, 1999). 따라서 2 - 3시간의 여가 시간이라도 여가 활동들을 경험하는 아동들의 유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루의 5시간 정도의 긴 여가를 보내는 아동들의 유능감이 낮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여가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컴퓨터(게임)와 TV시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조성자, 2008). 이렇게 영상매체나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학습할 기회가 적어지고 그 결과 사회성이 낮아지게 된다(이미정, 2010). 같은 맥락에서 실외에서 동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실내에서 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아동들보다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최지현, 2004).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국이나 유럽 청소년들에 비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두 배 이상 길고(이미리, 1996), 특히 초등학교생들은 여가 시간의 89%를 혼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기현, 이경상, 2006). 이렇게 아동들이 비자발적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경우 잠자기, 먹기, 씻기, 휴식하기와 같은 생활유지 활동 다음으로 컴퓨터 활동에 많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여가시간이 긴 아동들은 혼자서 컴퓨터 게임이나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낼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여가시간과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여가 시간동안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다. 아울러 아동들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다양한 여가교육이 필요하겠다.

넷째, 부모와 대화시간에 따른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와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인 아동들의 경우 부모와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는 아동들에 비해 학업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행동적 유능감,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네 개의 영역에서 유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유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유능감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Harter(198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부모와 충분한 대화시간을 가진 아동들은 이 시간을 통해 지지, 수용, 도움, 협력 등을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 받게 되는 반면, 부모와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아동들은 이러한 자원을 제공받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가 유능감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아동들은 대화시간을 통해 부모와 교감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학업, 신체, 행동적 유능감에 차이를 가져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행동적 유능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경우 부모와 대화시간이 2-3 시간과 5시간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모와 2-3시간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장시간 동안 함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충실

한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만,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오히려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최성희, 2015)를 감안하여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친한 친구의 수에 따른 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한 친구의 수가 1명 미만이 학생이 7명으로 나타났다. 7명의 학생은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아동기에는 관심과 상호작용의 대상이 부모로부터 친구로 점차 확대되면서, 친구관계가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준거가 된다(김동현, 이규미, 2012). 친구관계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 뿐 아니라 학업, 파괴적 행동, 학교 부적응 등 외현적 문제행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Crick & Ladd, 1993; Parkhurst & Asher, 1992). 이처럼 또래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고통이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담임교사 및 부모 연락, 상담기회 제공, 전문가 의뢰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상담과 교육 및 지원, 지역과 연계된 전문 상담 활동(청소년상담센터, 위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포함한 사후대책도 강구해야할 것이다.

한편 친한 친구의 수가 1-2명인 아동들은 5명 이상의 친구를 가진 아동에 비해, 학업적, 사회적, 운동적, 신체적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다섯 개의 영역에서 유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아동은 중요 타인인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능감을 발달시킨다는 Harter(1982)의 주장을 뒷받침한

다. 아동에게 친구란 활동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와 수용을 제공하는 존재이다. 아동들은 친구를 통해 이전에 느껴보지 못하던 동질감, 소속감, 일체감, 친밀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건강한 자아개념과 이후 심리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가는 유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영희, 2011). 아동들은 친구와의 긍정정서, 합리적 의사소통, 다양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학업능력, 운동능력, 사회적, 신체, 행동 등 전반적으로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끼리 자주 만나고, 친밀감을 느끼고, 의미 있는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친구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또한 친구와의 갈등 관계에서 어머니는 중재적 영향력을 보이며, 어머니와 아동간의 비밀이 많으면 오히려 친구관계의 친밀감이 낮으며, 어머니의 영향력을 인식함에 따라 상호작용 전략이 다르고, 강한 관여일 경우에는 갈등 해결에서 오히려 단절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안경숙, 2001), 부모가 세심하면서도 지혜롭게 친구 관계의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독서량에 따른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독서량이 1권 미만인 아이들에 비해 일주일에 3권 이상을 읽는 아동들의 학업적, 행동적 유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에 따라 학업적 유능감이 차이를 보인 결과는 교과 연계 독서가 학업성취도(한정희, 2013), 학업적 자아개념(함수희, 2008),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이수현, 2009)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서량에 따라 행동적 유능감이 차이를 보인 결과는 독서가 아동의 품행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서석진, 2012; 선정화, 2009; 성지영, 2012)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은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깊은 사고를 하며, 사고를 확장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사고력과 지적 능력을 발달시킨다(최윤진, 2007). 또한 책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과 저자의 언어를 통해 사회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한다. 따라서 독서는 아동들에게 인지적 능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을 경험한 아동들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동기가 향상되었는데(이희정, 2010), 이처럼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동기를 높이고, 독서량을 늘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 하겠다. 또한 독서량에 따른 유능감 차이를 고려할 때, 아동이 읽는 도서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기 때문에 관심과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독서량을 늘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 연구에서는 독서의 성격(만화, 학업연계, 문학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생활변인에 따라 아동의 유능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생활변인에 따라 유능감의 하위영역에 다양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생활변인 중 부모와 대화시간, 친한 친구 수, 독서량은 유능감의 다양한 영역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특히 친한 친구 수는 다섯 개의 유능감 하위 영역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확

인되어, 아동기 유능감 발달에 친구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교현장에서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고 친밀감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평가체계를 포함한 교육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부모와 대화시간도 유능감의 다양한 하위 영역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가정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유능감 발달을 위해 사회, 학교, 가정에서는 아동들이 친한 친구를 사귀고,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아동들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능감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정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는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변인이 유능감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만을 사용하였다. 생활변인과 유능감과의 관련성이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생활변인과 유능감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생활변인의 문항이 적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생활변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내용, 책의 종류, 사교육의 항목 등을 포함하여 추가

적인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생활변인 이외의 다양한 생활변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의 범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생활변인을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생활과 관련된 경험이 유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광범위한 생활 경험에 대한 정량적 연구(학업성적, 경제력, 이성친구, 학교폭력, 문화생활, 자원봉사, 운동량 등)가 필요하다. 셋째, 친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하겠다. 넷째, 단순한 사교육 수가 아니라 사교육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친한 친구 수, 부모와 대화시간, 독서량 등이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었다. 이런 변인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 (2013). 초등 정의적 능력 평가 예시자료.
 김경희 (2008). 사교육 수강이 교과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인식.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현, 안선영 (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김기현, 이경상 (2006).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 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06-R14

연구보고서

김동현, 이규미 (2012). 초등학생의 사회적 행동특성과 또래지위 관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23.
 김민경 (2005). 부모-아동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경 (2009).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아 (201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기 유능감과 또래관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민 (2016). 자율성 지지와 유능감, 성취목표 및 자기주도학습의 구조적 관계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희 (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과보호, 사회적지지, 사회적 유능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선 (2016).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목표지향성과 학생의 유능감 수준이 자기결정성동기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순 (2012). 유아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정서기능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은 (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유능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자 (2004). 다중지능과 가정변인이 초등학생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 (2002).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여가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은희 (2015). 동화를 통한 집단독서상담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용구, 윤영선, 안동수 (2016). 대학생의 여가 경험이 여가유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5(5), 529-538
- 명지영 (2002).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남희 (2009). 초등학교 학생의 독서환경과 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끼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경, 이무영 (2008).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대한아동복지학회. 아시아아동복지연구, 6(3), 19-33.
- 박상혁 (2012). 유능감과 운동 행복 및 운동 탈진의 인과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4), 321-334.
- 보건복지부 (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09). 아동, 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23(4), 321-334.
- 배지아 (2014).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가노가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1999).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석진 (2012). 독서치료가品行장애 청소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6). 한국 아동의 삶의 질 3차년도 연구 발표회 자료집.
- 서재연 (1998).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정화 (2009). 상호작용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品行장애 아동의 자아개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지영 (2012). 독서치료 프로그램이品行장애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애리 (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송미원 (1999).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 및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명 (2011). 특목고 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탄력성, 학업적 유능감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25(3), 647-669
- 신지영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수준, 유능감 수준 및 교우관계의 질적 특성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은미 (1989). 아동의 유능감 지각이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숙 (2001). 초등학교 학생의 친한 친구 사귀기 과정: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인렬 (2011). 초등학교 학생의 뇌 양식과 독서능력 수준에 따른 뇌 기반 독서활동의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엽경은 (2016).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비만과의 관련성.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윤주 (2009).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 는 효과. 부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복남 (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령기 아동 사회성, 정서 특성 조사기 개발. 충청남도 여성정책 개발원.
- 유은경 (2000). 아동의 기각된 유능감과 학교학습태도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민, 이해란, 이건희 (2007). 소아청소년기의 수면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소아신경학회지, 15(2), p.185-191.
- 윤종효 (2000).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 요인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수희 (2000). 무용학습이 초등학교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희 (2006). 학습장애아동의 귀인과 자기유능감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리 (2013). 청소년기 혼자 시간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활동 내용과 심리상태의 차이. 청소년복지연구, 15(2), 175-193.
- 이미정 (2010).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수준과 사회성간의 관계.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 (2009). 교과연계 독서가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리 (2012). 참여몰입 및 관찰몰입과 행복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 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나 (2006). ADHD 성향 아동의 창의성과 자기유능감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 (2003). 부모의 수용-거부와 아동의 자기표현, 자기유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12). 청소년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만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 이학래 (1999). 생활체육 참가, 신체적 여가유능감, 사회적 여가유능감, 및 인지적 여가유능감과 생활만족 간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8(3), 155-169
- 이혜진 (2011). 수면이 운동피질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두개 자기자극법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 (2010). 자기선택적 독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림 (2010).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정 (2005). 사교육이 아동의 학습동기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상희, 장정미 (2009). 수면장애에 관한 동서 의학적 고찰 및 국내 간호연구 분석. 동서간호학연구지, 15(1), p.43-53
- 조경서, 남기원 (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교육학회, 15(4), 161-178
- 조명화 (2009). 성취결과 피드백 제시 방법이 수행목표 성향에 따라 흥미와 지각된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자 (2008).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여가활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림 (2012). 운동참가에 따른 중년여성의 건

- 강신념과 무망감, 수면의 질 및 행복지수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연 (2008). 책 읽어주기의 뇌과학적 이해와 교육적 시사점.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길례 (2002). 가족의 여가 활동이 정서적 역동성과 가족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나 (2007). 사교육 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희 (2015).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여가영향력이 가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선, 김동현 (2016) 성별에 따른 아동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초등교육연구*, 29(2), 231-255
- 최윤진 (2007). 다독과 독서일지쓰기가 아동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2004). 초등학교 아동들의 여가활동과 대인관계의 상관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식 (2013).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시험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만 15세 대상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2)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 12 .3.)
- 한신일, 이석열, 박진은 (2012). 학생의 사교육 참여 자기결정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 및 학업성취의 관계 분석. *홀리스틱교육연구*, 16(2), 67-90.
- 한정희 (2013). 초등학교에서의 교과연계 독서가 학습부진아의 학업취척도와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수희 (2008).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표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봉자 (2001). 성취목표와 성적과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유능감의 조절 역할.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순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 유능감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Connel, J. P. (1987). Context, self and action: A motivational analysis of self-system processes across the life-span. In D. Cicchetti(Ed.). *The Self in Transition: Infancy t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77-87.
- Harter, S. (1985). Competence as a dimension of self-evaluation: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self worth.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Heath, J. H. (1981).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Mussen, P. H., Conger, J. J. & Kangan, J. (198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ed.). New York : Oxford.
- Sadeh A., Gruber R., Raviv A. (2002). Sleep, neuro behavioral functioning, and behavior

- problems in school-age children. 405-17.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37-287.
- Touchette E., PetitD., Tremblay R. E. (2009).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of early childhood dyssomnias: *New perspectives. Sleep medicine reviews*, 13(5), 355-361.
- Crick, N. R., & Ladd, G. W.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 Attribution,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44-254.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231-241.

원 고 접 수 일 : 2016. 10. 19.

수정 원고접수일 : 2016. 12. 05.

최종 게재 결정일 : 2016. 12. 12.

A Study on the Life Factors Giving Difference to the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Choi, Yoon Sun

Kim, Dong Hyun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ife factors giving difference to the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For an analysis, hour of sleep, number of private tutoring,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leisure time, number of close friend, amount of reading book were included in life factors. Two different questionnaires on life factors and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were used. The sample consisted of 515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our of sleep makes difference to athletic competence. Second, number for private tutoring makes difference to scholarship competence. Third, leisure time makes difference to social competence. Fourth,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makes difference to scholarship competence, physical competence, behavior conduct competence, and general self-worth. Fifth, number of close friend makes difference to all six domains of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such as scholarship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competence, behavior conduct competence, general self-worth. Sixth, amount of reading book makes difference to academic and conduct competence. As a result, the life factors give difference to the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The major factors that make difference to the perceived competence are number of close friend and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Key words :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hour of sleep, number of private tutoring, leisure time,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number of close friend, amount of reading book.